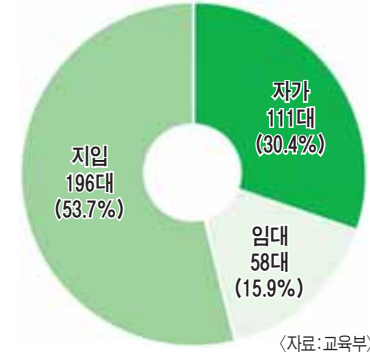


광주 유치원 통학차량 절반은 불법 '지입차'

365대 중 196대가 개인 소유...대부분 미신고 차량

■ 광주지역 유치원 통학차량 소유 현황



겉치기 운행 일수...시간에 쫓겨 사고 발생 가능성

광주지역 유치원 통학차량 2대 중 1대는 통학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지입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교육 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치원 통학차량 운행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지역 유치원 182곳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은 총 365대다.

소유 형태를 보면 유치원 소유가 111대(30.4%), 임대차 58대(15.9%)이며, 나머지 196대(53.7%)는 지입차량이다.

지입차는 유치원 소유가 아니라 운전기사 개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는 이를 유

상으로 운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입차는 여러 유치원과 분

어발식 계약을 맺은 뒤 운행시간에 쫓겨 급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지입차량 비율은 광주와 대전(69.7%)·부산(56.9%)·서울(54.9%)·경기(53.7%) 등 대도시가 높았다. 이들 지역은 좁은 지역에 유치원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지입차 대부분이 미신고 차량이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전체 통학차량의 46%인 168대가 미신고 차량이다.

통학차량을 관한 경찰에서 신고하면 아이들이 승차차를 할 때 그 차량

이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는 등 특별보호를 받는다.

전남지역은 191개 유치원에서 276대의 통학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이 중 133대(48.2%)는 유치원 소유이고, 127대(46%)는 임대, 나머지 16대(5.8%)는 지입차량이다. 미신고 차량은 81대(29.3%)였다.

김희정 의원은 "통학버스 차량은 어린이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약속한 종합대책 마련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관리·감독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공립 유치원 교사

390명 추가 선발

하반기 시·도 배치

정부가 공립유치원 교사 390명을 추가 선발해 하반기 일선 시·도 유치원에 배치한다.

교육부와 신규인용시험 시·도교육청 공동관리위원회는 2013년 공립유치원 교사 추가 정원 390명을 이르면 9월 1일자로 임용키로 하고 이달 21일 시·도교육청별로 세부 임용계획을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3~5세아 누리과정 확대 시행되는데 맞춰 공립유치원 교사 정원을 당초 시험공고 때보다 390명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 11월 시험변경공고를 냈으나 서울형정법원이 시험변경공고를 취소하라고 판결, 추가 정원을 뽑지 못했다.

이달 21일 시·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세부사항을 공고한 이후 6~7월에 1~2차 시험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다문화가정 어린이 무료 구강검진

전남대 치과병원은 지난 11일 오전 병원 종합진료실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초청해 무료 구강 검진을 실시했다. (관련기사 17면)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법원, 조선대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광주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박병철)는 최근 강동원 조선대 교수가 서재홍 총장과 박해천 부총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가 총장 후보 신분인 서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하면서 강 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하도록 결의한 것은 대학 구성원 화합을 위한 권고나 제안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대학 총장선거에서 1위를 한 서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총장 취임 후 2위 득표자인 강 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하도록 했으나 대학 내에서 이의제기가 잇따르면서 임명되지 못했다.

/*윤형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주교 '5·18, 그리고 한반도 평화' 행사

19일, 산수동 성당 청년 도보순례단 출발

20일, 남동 성당 김희중 대주교 기념미사

5·18 민중항쟁 33주년을 맞아 한국천주교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5·18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념미사와 축제, 학술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기념행사 시작은 19일 청년 도

보순례와 추모 미사. 도보순례 참가자들은 광주 산수동 성당을 출발해 국립 5·18 민주묘지까지 13km를 행진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광주대교구 김영호 신부의 주례로 추모 미사를 봉헌한다.

20일엔 광주시 남동 5·18 기념성당에서 김희중 대주교가 집전하는 기념미사가 봉헌 될 예정이다. 미사에 앞서 주먹밥 나눔과 공연 등 문화행사가 펼쳐지며, 5·18과 천주교 증언록 출판기념회도 열린다.

마지막날인 22일엔 광주가톨릭대학교에서 '5·18과 천주교'라는 주제의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학술대회에선 김희중 대주교의 기초강연에 이어 김용해 신부와 안종철·정호기 박사가 발제에 나선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30분 해질 19시 28분 달돋이 07시 46분 달질 22시 11분

초여름 날씨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안개 끼는 곳 있으니 주의하세요.

광주	맑음	15/28°C
목포	맑음	14/26°C
여수	맑음	15/23°C
나주	맑음	12/27°C
완도	맑음	14/26°C
구례	맑음	10/30°C
강진	맑음	11/27°C
해남	맑음	12/28°C
장흥	맑음	10/28°C
순천	맑음	10/29°C
영광	맑음	14/27°C
진도	맑음	13/25°C
전주	맑음	16/30°C
군산	맑음	14/26°C
남원	맑음	11/29°C
홍산도	맑음	13/21°C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경고	높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경고	높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경고	높음	낮음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4/28	15/25	15/25	14/23	15/21	14/24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군복무 기간 이자 면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일반상환학자금·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이용자도 군 복무 기간 이자를 면제해줄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드든학자금' 대출자만 군복무 기간 이자를 면제받았는데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된 덕분에 모든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이 이런 혜택을 받게 된다.

일반상환·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

무요원 등 군 복무자는 별도 신청 없이 5월10일부터 발생하는 약정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이번 혜택은 이자에만 한정돼 원리금을 납부하는 대출자는 원금을 내야 한다.

드든학자금 대출자를 포함해 매해 군 복무 대출자 8만2000여명이 이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화창한 5월 봄날씨

'자외선B' 주의하세요

피부암 등 유발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에 흉터 이 생기고 피부암, 안질환 등을 일으키는 '자외선B'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5월부터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긴 소매,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는 등 자외선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강릉, 포항, 목포, 제주 고산 등 5곳에서 자외선B를 관측한 결과 강릉을 제외한 4곳에서 5월부터 월평균 자외선B 지수가 '6'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안면도 자외선 관측 결과 5월에는 '높음'에 해당하는 6.6을 기록, 햇볕 노출 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5월부터 자외선 지수가 '높음' 단계에 들어서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지수(SPF)15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태양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감각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밖의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펼쳐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와 한다. 말기심장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대원한의원(의사)의원 제120106-09819호(광주) 광주점 062-368-5075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와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짝짝하고 눈물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앞이 뿌옇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얼굴기가 걸리거나 아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

광주·전남 大山 프리모남녀가발

가능장1호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궁인기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